

# 고교생 죽이는 현장실습 전면 폐지

### 노동력 착취·학습권 침해 등 문제발생 지속... 내년부터 조기취업 폐지 방안 추진

교육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직업계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교 현장실습생 사정사과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올해 8월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 적용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현장실습이 여전히 근로에 중점을 둔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지난달 제주지역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

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현장실습은 학습 지도와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교육부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 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현장실습 중 학생들이 안전을 위협 받거나 인권을 침해받으면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도 설치·운영된다.

직업계고가 현장실습을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여 성과를 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취업률을 학교 평가 지표로 점수화해 각종 예산 배정 등에 활용하는 체계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고용 안정성 등 취업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 취업률을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교사가 입력하는 취업률 조사 방식을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직업계고 유지 취업률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관계 부처는 1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관계 부처는 전공의 폭행 등 의료환경 내 인권침해 대응 방안도 안건으로 논의했다. 최근 일부 대학 병원 지도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하고, 병원이 재단 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하는 사건 등이 발생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의료환경 내 인권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공의 폭행사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병원이 폭행사건에 대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해 4일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는 미혼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모는 2만4000명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주거·학업·취업 지원을 내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해은 기자



## '내맘대로 출장' 꿈작마

### 도교육청, 교원 외부강의 엄격 확인 예고

전북도교육청이 교원(직원)들의 외부 강의를 꼼꼼히 확인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외부 강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소속 부서장은 직무연관성과 업무 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해 외부 강의 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또 외부강의 출장을 반드시 요청 기관의 공문에 의거해야 하며 전화 또는 이메일에 따른 강의는 금지된다.

외부 강의 요청을 받은 이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출장을 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고대상이다.

이와함께 근무시간의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직무 연관성, 정책 수행 목적일 때는 예외다.

고액수령료 수수료는 금지되며 5급 이하 2만원 등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대학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돼 지속적으로 출강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해은 기자

## 군산대 산학연 성과 발표회

군산대학교가 지난달 3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17 군산지역 산학연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산학연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진행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소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성과발표회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LINC+사업단,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산업단지공단전북본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가 공동주관하였다.

성과발표회에는 군산대 및 호원대 가족회사 관계자, 군산지역 기업지원 기관 및 연구기관 관계자, 산학연협력 관련 내빈, 지자체, 전북권역 4년제 대학, 산업체 관계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군산대 김동익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 성과발표회를 계기로 도내 주요 기관 및 산업체들이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장점은 살리고 아쉬운 점은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시대 흐름에 적합한 산학협력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갑관 기자

## 군산대 홍보표 교수 산업현장교수로 선정

군산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홍보표(사진) 산학협력중점교수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7년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선정됐다.

산업현장교수는 경력 15년 이상의 현장경험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현장 지원 전문가가 기업경쟁력 및 교육 현장성 강화를 위해 장년층 및 고령층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기술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홍 교수는 중소기업 및 직업훈련기

관의 애로기술해결, 기술개발 지원 및 현장 맞춤형 노하우 전수 등 산업현장의 기술 단절 방지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는 기업에서 29년을 재직한 경력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중심대학인 군산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기업지원센터장, 취업지원팀장을 역임하고 있다.

홍 교수는 지난해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청 장관상을 수상했다. /군산=김갑관 기자



## "지역발전 이끌어주길" ... 발전기금 전달

### 참프레 김동수 회장 전북대에 1억원 쾌척



전북대학교 이남호 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참프레 김동수 회장을 대학에 초청해 발전기금 기탁식을 갖고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 인사를 전한 가운데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지역 닭고기 가공 전문기업인 (주)참프레 김동수 회장이 전북대 개교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1억 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이남호 총장은 지난 1일 오후 김 회장은 대학에 초청해 발전기금 기탁식을 갖고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평소 지역대학 발전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마음을 가져 온 김 회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개교 70주년인 뜻깊은 해에 평소 신념을 실천하기로 한 것.

이 기금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길 바랐다.

김동수 회장은 "개교 70주년을 맞은 전북대가 고유의 브랜드를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에 각인될 독보적 네임밸류를 키워나가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지역의 대표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곧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북대가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호 총장은 "대학 발전을 위

해 큰 뜻 베풀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학의 발전뿐 아니라 지역 발전까지 이끄는 성숙한 전북대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해은 기자

#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